

골칫거리 호혜원 악취 내달까지 사라진다

나주시·마을운영위 축산 폐업 보상 합의 축종 관계없이 가축 처분

- 보상금 지급 어떻게**
- 총 279억 중 77억 우선 지급
 - 잔여보상금 내년 예산에 편성
 - 축사 등 165억은 2017년까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골칫거리 중 하나였던 호혜원 양돈농가의 악취 문제가 해결 국면을 맞고 있다.

나주시와 호혜원 마을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호혜원 마을회관에서 시 관계자 및 마을운영위원 1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악취발생의 근원인 축산 폐업에 따른 보상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사항으로는 ▲오는 7월말까지 축종에 관계없이 모든 가축을 주민 자율적으로 처분 완료 ▲가축 처분 시 축사, 퇴비사에 적치된 가축분뇨도 주민 자율 처리 ▲축사 등 지장물은 2017년까지 국토교통부, 전남도와 협의해 국비지원이나 공영개발 통해 보상 추진 등이다.

그동안 축산농가가 축사 및 지장물 보상 165억원에 대해 시의 지급보증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호혜원 축산폐업 협상은 결렬된 상태였다.

성만 호혜원 이장은 “가축만 들어내면 자동화 기계 등 시설이 녹슬어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돼 안전장치로 그동안 시에 보증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이번 협상 제기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2017년까지



나주시와 호혜원 마을운영위원회가 지난 9일 축산 폐업에 따른 보상에 합의함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혜원 전경.

나주시가 해준다는 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아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양측이 서로 합의한 보상금액은 지난 4월 실시한 감정평가에 따라서 생축보상 114억원과 축사 및 지장물 165억원 등 총 279억원이다.

나주시는 합의한 내용이 담긴 최종 공문을 마을운영위원회에 즉시 발송하고 합의안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보상금 중 당초 확보된 80억원에서 용역비 3억원을 제외한 77억원을 들여 주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과 자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돼지 50억원, 타 축종 27억원을 우선 보상하고, 잔여 보상금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축사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65억원은 국비지원이나 공영개발을 통해 늦어도 2017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 축산농가



현재 방치돼 있는 폐축사.

및 폐업농가 85가구의 건축물 327동을 매입해 주차공간이나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로 다음달 말까지 호혜원 일대의 냄새가 사라지면 혁신도시 입주민의 생활환경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호혜원은 지난 1946년에 나한사 370여명이 정착한 곳이며, 거주 세대수

는 147세대에 286명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한센병 등록환자는 총 83명이고, 축산농가의 규모는 99가구다.

나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축산 악취가 다음달이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혁신산단 분양 갈수록 활기

한전 관련기업 4개사 29일 MOU 체결

보해도 조만간 계약서 서명

나주 혁신일반산업단지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다.

나주 혁신산단 투자유치 1호기업이 최근 분양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한국전력 관련 기업들도 투자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나주 혁신산단 투자유치 1호 기업인 보성파워텍(주)이 나주혁신산단(주)과 최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9일 전남도, 나주시, 한전과 함께 ‘빛가람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체결한지 3개월 만에 투자가 성사된 결실이다.

보성파워텍(주)은 송·배전 철탑, 플랜트 등 전력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연매출 1000억원(직원 200여명) 규모의 전기 분야 중견기업으로, 한국전력의 파트너 기업이다.

나주 혁신산단 8025㎡의 부지를 매입한 보성파워텍(주)은 앞으로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80명 이상의 인재를 채용해 친환경 전력기자재 생산 및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센서 개발 등 미

래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오는 29일 한전 관련기업 4곳이 MOU를 체결할 예정이어서 산단분양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4000평을 MOU 체결한 보해도 조만간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어서 나주 혁신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나주 혁신산단 분양이 이처럼 활기를 찾게 된 계기는 한전의 노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전 조인환 사장은 팀장급 이상의 직원들을 한전과 연관된 기업에 보내 나주 혁신산단으로의 입주를 적극 홍보했다고 한다.

나주혁신산단 정주일 단장은 “도시사가 선 분양계약하고 후 MOU를 체결해도 요율에 따라 입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의 편의를 지시하고 있다”며 “7월까지 20여곳과 MOU 체결할 계획이고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문의가 쇄하고 있어서 혁신산단 분양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영농철 마을 공동급식 ‘호응 좋네’

市, 이달말까지 158개마을 점심식사 지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나주시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동급식 사업은 농업인들의 바쁜 일손을 덜어주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고령 농업인의 안부를 살피는 등 마을 내의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시는 모내기 등 농작업으로 바쁜 이달 말까지 158개 마을을 대상으로 2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점심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마을 공동급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초 100여명의 공동급식 마을대표를 대상으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사업 추진요령’ 및 ‘음식물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나주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마을



공동급식 사업 추진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영농참여 확대와 고령화 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의 복지 사업 일환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정철형기자 chung@】

혁신도시 13개 이전기관 임직원 7600명 넘어서

3월말 현재 7642명 근무

3개기관 추가 입주 땀 8491명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동지를 틀 이전기관 임직원이 7600명을 넘어섰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기관 실제 근무인원을 파악한 결과 이전을 완료한 한국전력 등 13개 기관의 3월말 현재 실제 근무인원은 7642명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인원 6066명보다 1576명 많았다.

아직 이전을 하지 않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849명을 포함할 경우 총 인원은 849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사별 실제 근무인원은 한국전력,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 전력군 4개 그룹 인원이 가장 많은 4592명을 차지한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농업지원군이 1273명, 우정사업정보센터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정보통신군이 1239명,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학교 교직원연공금단 등 문화예술기관이 538명 등 총 7642명에 달한다.

나주 혁신도시 본사 근무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단연 글로벌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으로 1865명이다. 직원수 1611명에 청소·경비·임접은행 등 기타 인원이 254명이다. 한전KDN과 한전KPS 근무인원도 1000명이 넘는다는 매머드 기관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개 기관도 근무인원이 500명이 넘는 기관이다. 규모가 가장 작은 기관은 69명이 근무하는 농식품공무원 교육원으로 교육원 특성상 강사 전원이 외부에서 초빙해 오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전기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이전승인시점이 4~5년 전으로 그동안 새로운 업무영역이 증가하고, 업무 특성상 분야별 외주용역인원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주 혁신도시 16개 기관의 나주근무 직원수는 7188명이고 청소·경비·공원관리·식당·외주용역업체 등 기타인원은 1303명이다.

나주시 혁신도시 에너지과 관계자는 “높은 과학적 지식이나 전문적 기술을 소유한 이전기관 ‘테크노코르트’들이 나주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을 변화시킬 주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60주년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대회

접수기간
2015. 6. 9(화) ~ 6. 12(금)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개요 | 작품공모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 2015년 6월 25일(목)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 없음

참가

- 참가비 :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금남로 2가)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주최 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목포시 · 나주시